

2차전지

판가 상승 사이클 가속

- 5월 초 연휴 이후 중국 탄산리튬 선물/현물 가격 상승 지속
- 5월 7일 기준 중국 탄산리튬 현물 재고 일수 25일 수준으로 3.5년 내 최저치
- 26년 탄산리튬 가격 밴드 상향 조정: 15만 위안 ~ 20만위안 → 20만위안 ~ 25만위안

중국 탄산리튬 선/현물 가격 상승 지속

중국 탄산리튬 선/현물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5월 11일 기준, 6월 선물 가격은 20만 위안/톤을 돌파하였으며, 현물 가격 역시 19만위안(ICC)을 기록하였다. 탄산리튬 현물 가격은 5월 초 연휴 직전 가격 대비 +10.5%, 1분기 말 가격 대비 해서는 +23% 상승하였다. 1) 수요, 2) 공급, 3) 재고 수준 감안 시,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5~6월 중 단기적 Shortage 상황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 26년 탄산리튬 예상 가격 밴드를 (기준)15만위안/톤 ~ 20만위안/톤에서 (신규)20만위안/톤 ~ 25만위안/톤으로 상향 조정한다.

탄산리튬 현물 재고 일수 25일 수준. 3.5년 내 최저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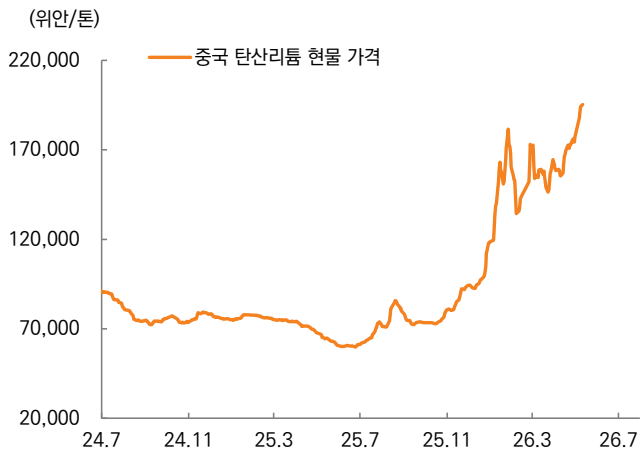
5월 7일 기준 중국 탄산리튬 재고 일수가 25일 수준까지 축소되었다. 과거 3.5년 내 최저치이다. 23년 하반기 극단적 공급과잉 구간 재고일수는 65일 이상 → 25년 상반기 40일 내외 → 25년 하반기 반내권 정책 시작 이후 30일 이하로 재고 일수가 축소되고 있었던 상황이다. 26년 연초(1~4월) 재고 일수는 28~29일 수준으로 타이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5월 연휴 이후 재고 일수가 25일 수준으로 추가적으로 축소되었다. 공급 단 변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수요 변수(글로벌 ESS 수요 증가 가속,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EV 수요 반등)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한다.

수요 변수 상향 조정. 공급 단 이슈 지속

가격 상승 및 재고 일수 축소는 1) 수요, 2) 공급 단 변수가 동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수요의 경우, 1) 연초 글로벌 ESS 산업 수요 성장이 가속화되며, ESS가 전체 탄산리튬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Albemarle에 따르면, 1~3월 글로벌 누적 ESS 배터리 수요는 200Gwh를 상회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EV 수요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작년 말부터 탄산리튬 가격이 EV가 아닌 ESS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트렌드가 연초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2) 부진했던 EV 수요도 미국-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개선되고 있다. 유럽/기타 시장의 EV 판매량은 3월 이후 유의미한 YoY 증가를 지속하고 있으며, 부진했던 중국 EV 판매 역시 4월부터 유의미한 회복이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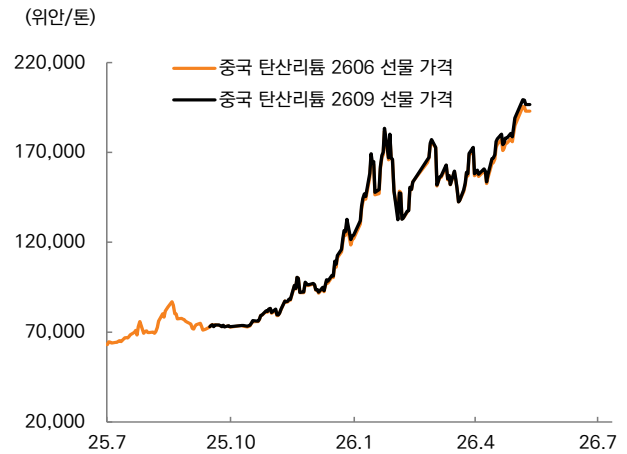
공급 단에서는 1) 이춘성 4개 광산 환경 허가 이슈 발생, 2) 짐바브웨 수출 통제 이슈 지속, 3) CATL 전사위 가동 중단 지속 등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공급 단 변수는 하반기 중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단기적 관점(상반기)에서는 공급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으로 파악한다. 5~6월 중 단기적 Shortage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림 1. 탄산리튬 현물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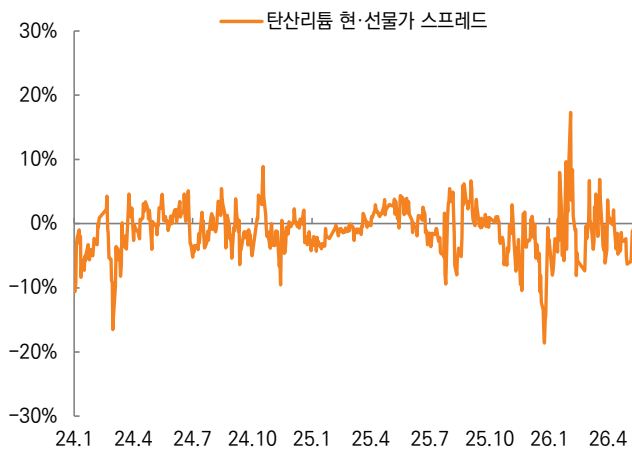
자료: IC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탄산리튬 선물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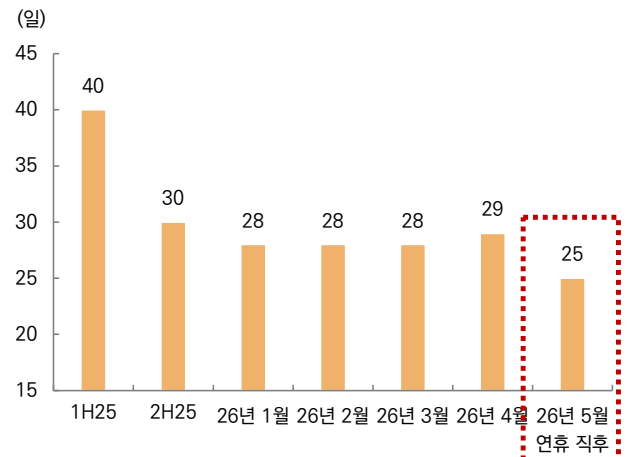
자료: IC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탄산리튬 선/현물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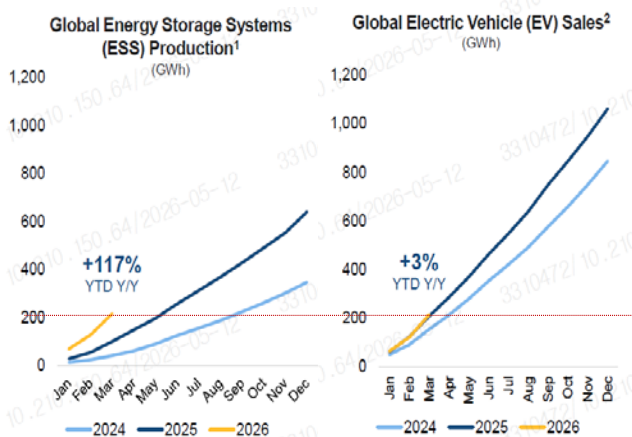
자료: IC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중국 탄산리튬 현물 재고 일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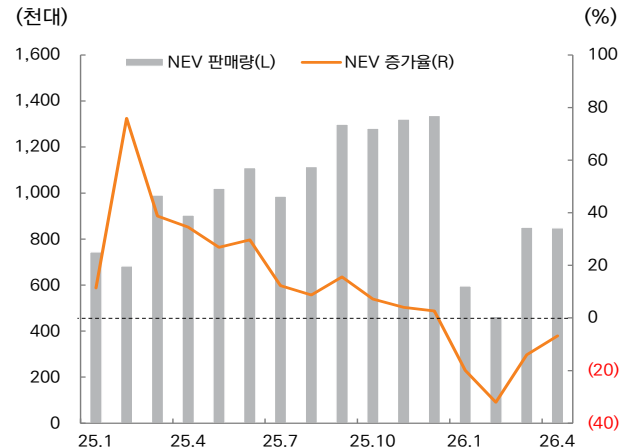
자료: SMM,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연초 글로벌 ESS 수요 성장률, EV 크게 상회



자료: Albemarl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중국 EV 판매량 추이 → 4월 판매 감소폭 둔화



자료: CPCA, EV volum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